

## 모두 말씀자료

- ☐ 금년 3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, 보험업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만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임
- ☐ 그동안 한국의 보험산업이 놀랍게 성장했음에도, 우리 금융에서 보험업이 갖는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
  - ① 우리 보험업은 GDP대비 보험료 비중이 세계 5위, 자산규모는 850조원으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player로 성장하였음
  - ②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80만명중 보험업 종사자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에 기여하는 역할도 매우 큼
  - ③ 2천만대 이상 등록된 자동차 보험,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등 보험은 이미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함
- ☐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, 우리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
  - 개인적으로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시 창의적·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함
  -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함
- ☐ 지난 3월부터 금융위·금감원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, 이를 기반으로 현장감·속도감있게 금융개혁을 추진중임
  - 이 과정에서 보험업권에서는 상품규제·가격통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

- ☐ 이와 관련하여, 저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함
  - 이러한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, 1차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고, 궁극적으로 보험산업 전반의 도약을 가져올 것임
- ☐ 물론,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이 결코 손쉬운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
  - 이를 위해서는 상품·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
  -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제는 ①상품신고 대상 축소, ②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,
  - 비명시적 규제는 ①각종 지도공문·구두개입·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, ②이를 토대로 상품개발·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음
- ☐ 저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
  -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생생히 말씀해 주시길 바람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